



남원소방서,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남원소방서(서장 박덕규)는 '사립이 먼저 안전 최우선'의 슬로건으로 지난 8일 대강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원 및 마을 이장을 대상으로 생명을 살리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진행했다.

심폐소생술은 심장과 폐의 기능이 멈추고 호흡이 정지되었을 경우 약 4~5분이 지나면 뇌 손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초 심정지 환자 목격자에 의해 신속한 신고와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환자 소생률도 증가한다.

특히 심정지 상황은 가정이나 직장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심폐소생술 교육을 통해 위급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현장에서 적극적인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보건소, 휠체어 무료 대여

남원시보건소에서는 재활보조기구가 필요한 장애인이나 일시적인 거동에 불편함이 있는 주민 누구에게나 재활보조기구를 무료로 대여하고 있다.

대여 재활보조기구는 휠체어, 목발, 워커, 지팡이로 대여기간은 3개월(1회 연장 가능)이고, 신분증을 지참하고 보건소 재활운동실로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며 대여 시 재활보조기구의 올바른 사용법을 설명하며, 자세한 내용은 남원시 보건소 재활운동실로 063-620-7969로 문의하면 된다.

박은순 남원시 보건소 건강생활과장은 "재활보조기구 무료 대여사업이 일시적으로 생활에 불편함을 겪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집수리 봉사... '따뜻한 안방 만들기'

### 진안군 부귀면 지사협, 독거 어르신 주거 환경개선 사업 실시

진안군 부귀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박영춘·공공위원장 한재길)와 주민자치위원회는 8일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독거 어르신의 주거 환경개선을 위한 '따뜻한 안방 만들기' 사업을 실시했다.

이번 사업은 도배·장판 등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여 편안하고 아늑한 보금자리를 만들어 홀로 계시는 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계획·추진했다.

위원들은 집 전체적으로 낡고 오래된 벽지를 교체하고 집안 정리와 청소 등 주변경리를 했으며 LED 전등교체, 화장실 수도 교체, 보일러실 점검 등 보수가 필요한 집안 곳곳을 전반적으로 수리해 보다 편안한 주거환경을 제공했다.

이날 도움을 받은 박모 할아버지(78)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곰팡이가 핀 벽지를 교체할 엄두를 못 내고 있었는데 이렇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도움을 받아 너무 고맙다"고 말했다.

한재길 위원장은 "홀로 사시는 어르신께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 환경을 선물해드린 것 같아 매우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는 언제든 봉사를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재길 면장은 "어려운 이웃의 생활과 안전을 위해 구슬땀을 흘린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며 "항상 주변을 살펴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귀면은 '부기영화 실현을 위한 구석구석 온(溫)네 만들기'를 추진 중에 있으며,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온기가 넘치는 재능 나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고창군 의회사무과 직원, 농촌일손돕기 나서

고창군 의회사무과(과장 봉원엽)는 노동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방문하여 농촌일손돕기에 나섰다.

고창군 의회사무과 직원 14명은 한층 빨리 찾아온 더위와 함께 구슬땀을 흘리며 마늘 훠털기 및 수확을 했다.

일손돕기 지원농가는 "마침 일손이 필요한 때에 고창군 공직자들이 내 일처럼 도와주어 늦지 않게 농사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봉원엽 과장은 "코로나로 인해 일손부족이 심한 시기에 농가를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힘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일손 돋기를 추진해 지역민의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겠다"고 밝혔다.

/고창=김명식 기자



정읍시 총무과·영원면 직원들, 농촌 일손 돋기

정읍시청 총무과 직원들과 영원면 직원 25명은 8일 오후 양파 수확시기를 맞아 영원면 흔랑마을 양파 재배 농가를 방문해 일손 돋기에 나섰다.

이번 일손 돋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농촌 인력난이 어느 때 보다 심각한 가운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돋기 위해 마련됐다.

봉사에 참여한 직원들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양파 수확에 구슬땀을 흘렸다.

특히, 농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작업 도구와 생수, 간식 등도 직접 준비했고, 단기간에 집중적인 노동력을 투입해야 하는 농가에 단비 같은 역할을 톡톡히 했다.

/정읍=김대환기자



## 국민안전교육진흥원, 임실군에 900만원 상당 화장품 후원

(사)전국민안전교육진흥원(원장 강길원)이 8일 임실군을 방문해 다문화가정 및 관련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9백만원 상당의 화장품 50세트를 후원하였다.

(사)전국민안전교육진흥원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을 기본으로 전주시 효자동에 2017년 7월 설립하여 생활·교통·재난 등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통한 전 국민의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교육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2018년도부터 연탄 봉사·복지관·취약계층에 식료품을 전달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미스터도 10만장 이상 기부하는 등 사회공헌활동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심민 군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화장품을 기부해 주신 (사)전국민안전교육진흥원에 감사드린다"며 "어려운 군민들에게 따뜻한 밤 한 끼와 같은 좋은 선물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기부 물품을 전달받은 오수연 김모씨는 "코로나로 생활이 더욱 어려워져 화장품이

/임실=진홍영기자



## 진안군사회복지협의회, 제5기 사회복지대학 첫 걸음 시작

진안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진)는 8일 전춘성 군수, 김광수 군의장, 임학생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안문화의 집에서 2021년 제5기 사회복지대학 입학식을 가졌다.

사회복지대학은 사회복지 전반적인 개념 이해와 복지현장 탐방을 통해 긍정적인 사회복지 미인드를 형성하고,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삶과 죽음에 대한 올바른 사고를 정립하여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진학사일정은 8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11월 2일로 예정된 졸업식까지 매주 화요일마다 20주차로 진행된다.

수강과목은 사회복지이론, 사회복지현장 실천사례, 건강과 복지, 사회복지 현장체험, 웨딩, 지역복지탐방 등 다양한 수업으로 이뤄진다.

김승 사회복지대학장(서영대학교 겸임교수 역임)은 "오늘

부터 하루하루를 진리를 향한 열정으로 채워나가길 바란다."며 "그런 시간이 모여 졸업할 즈음에는 커져 있는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 김제시, 농업인건강·연금 보험료 지원대상자 조사

김제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는 농업인 건강·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자의 자격요건 확인을 위해 지난 7월부터 18일까지 2주간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활과 복지증진 및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보험료의 최대 50%를 국비로 지원한다.

시는 해당 사업 일제조사를 위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자 중 '농업경영체 등 농업인 관련 공적자료'가 없는 자에 대하여 협조 확인조사 등을 실시하여 조사 결과 자격요건 상실자에 대해서는 상실시점을 기준으로 지원이 제외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지구를 사랑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